

### 목어 산을 좀 쉬게합시다



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휴식년제를 적용하여 한 두 해 쉬도록 한 산이 생기를 되찾고 몰라보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행패가 대단하구나 하는 느낌이다.

일간에 한 산악연맹이 주관해 북한산에서 산악마라톤을 열어 축제를 삼으려고 한다는 소식이다. 주관 단체가 내세우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한 보도에 의하면 북한산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에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한다. 연간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중에는 산을 타는 전문 등반가도 있겠지만 취미 삼아 산을 오르는 아마추어 산꾼들도 있다. 목적에 따라서는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산을 의지하여 상업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면 산과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자연친화적인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자연친화적인 마음을 구현하는 방법은 개인이나 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누구나 산을 훼손하거나 인위적으로 괴롭히기를 자청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들이 목적 삼은 일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그 일이 결과적으로 산을 훼손하는 일이란 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보살들은 길을 다닐 적에 산 풀도 함부로 밟지 않는데 하물며 손으로 뽑을 것인가." 자비심을 가르치는 부처님의 계율 말씀이다. 산길을 걸으면서도 생물에겐 훼손을 줄여봐질신조차 영가성기 싫은 산을 신고 다녔다는 선조들의 일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 뱀발로 울라간들 밟히는 생물이 어찌 없겠는가만 그런 마음을 간직하지는 가르침이다. 개밥이라는 미명 아래 산을 깡그리 몽개버리는 작업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 자연과 함께 하는 마음이 실종된 참담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건강한 자연이 결국 우리들의 건강이란 것을 통속해 보자. 우리에게서는 아무리 긍정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그 행사의 결과가 자연이나 인간에게 부정적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근후(불교상담개발원장)

얼마 전 유엔개발계획(UNDP)은 세계의 빈곤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전세계에서 하루 1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12억명에 달하며, 세계 3대 부자의 보유자산

하루 3만명에 달하는 5살 이하 아동이 예방가능한 원인 때문에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절대빈곤층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국제기구를 통해 꾸준히 전개

되고 있는 비용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아니다. 전세계 모든 아동에게 기초교육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60억달러인 반면 매년 유럽에서 아이스크림 소비에 1백10억달러가 지출되고 있고 전세계에서 스낵 등 정크 푸드에 9백20억달러, 화장품에 6백60억달러를 각각 쓰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개 최빈국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부채감각 규모는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부처님은 업의 소산에 깨를 깨는 것을 경계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다. 때문에 부유층은 부를 공동의 사회로 회향하고 빈곤을 타파하는 공동체적 사회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지금 당장 절대빈곤층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과 보건, 기초교육 지원, 식수 및 위생사업을 위한 지원일 것

인 측면에서 절대빈곤을 추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들 절대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앞으로는 네트워크시대에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인간개발에서 뒤처지고 세계경제의 주변국으로 전락하게 되어 영원한 극빈국의 명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그 나라의 국민 특히 어린이들에게 전가되어 빈곤의 고통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구가 앞장서 이들-극빈국이 현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비롯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 불행 교육에 대한 투자만이 가난을 스스로 극복하고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불자 세상보기



송일호 동국대 교수 경제학

## 富 사회 회향, 빈곤층 자립에 써야

이 49개 최빈개발국(LDC)에 거주하는 6억명의 연간 소득을 합산한 것보다 많다는 것이다. 또한 유니세프의 통계에 의하면 1분마다 20명의 어린이가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되던 빈곤층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지난 50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60년 이래 개도국의 아동 사망률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아동 비율은 약 3분의 1이 줄었으며, 지난 20여년에 걸친 기초적인 면역 확대로 3백만명의 아동이 목숨을 구했다. 또한 초등학교 중퇴율은 50% 이상에서 25% 이하로 감소했다. 한편 절대빈곤을 추방하기 위해 필

적계는 디즈니 건설비용 수준인 55억 달러, 말게는 스티븐 전복기 1대 가격보다도 적은 77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이를 홍보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힘을 모은다면 절대빈곤의 추방이 결코 인류사회의 요원한 희망으로만 남지는 않을 것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빈곤과 부유는 큰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 빈곤이 전생으로부터 시작된 현생의 과보라면, 부유

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그리고 지구촌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절대빈곤의 추방이 달성가능한 목표라는 인식 아래 함께 동참하여 고통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2차대전 이후 패전국과 동유럽 그리고 중국 등과 함께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볼지도 하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적

### 현대불교를 읽고

#### 부처님 오신 의미 되새기는 하루 돼야

4월 3일자 1면 '뉴스속뉴스'란 '초파일 시험 13건-너무하다'를 읽고 의견을 적는다.

몇 년전 국가공무원 시험을 일요일에 치르지 말라는 기독교인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항의를 받아들여 모든 공무원 시험을 평일로 바꿨다. 이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점은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에는 국가 신학기전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서 부처님오신날에는 치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부당한 처사에 대해 불자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설명 알고 있더라도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부처님오신날의 큰 의미를 널리 알려 부처님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대전에서 MBC라디오대화가 있다. 나는 불자지만 그날 마라톤에 참가할 것이다. 마라톤을 뛰는 현장에서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등에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현수막을 붙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완주할 것이다. 이종철(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 청담스님 가르침 잘 선양하는 계기

4월 10일자 2면 '청담스님 기념사업' 기사를 읽었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청담 큰스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재조명하기 위한 기념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는 반갑다. 학술세미나, 전집 및 논총 간행, 상설전시관 개관, 사진집 발간,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우리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청담스님의 높은 뜻이 사업들을 통해 잘 선양되었으면 하면서 한마디 보탠다. 이러한 행사들이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외형적으로만 치중해 펼쳐지지 말고, 스님의 유지를 잇는 훌륭한 선지식들이 계속해 나올 수 있는 수행풍토를 조성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청담스님을 비롯해 많은 큰스님들의 정신과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어떻게 잇고 확산시켜야 하는지에 중점을 모았으면 한다. 허영희(대구시 동구 속천동)

## “한국불교 해외소개 시급”

혜원스님, 美 세계동양학회 참가기 특별기고



논문이 많이 발표됐다. 특히 불교에 관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는 등 미국에서의 불교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원자는 '여성'과 '수행' 분야에서 '현재 한국비구니의 수행과 의미'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분야에는 총 4명의 학자들이 여성불교의 가능성과 역할 그리고 불교와 아트속에서 나타난 불교의 여성상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많은 서양학자들이 '여성'과 '수행' 분야에 참석해 발제자들의 발표를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많은 질의가 있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선종사를 전공한다는 한 서양인 학자는 한국 비구니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비구와 비구니가 동등한 교육제도와 선원 생활을 하며 전법계를 인가받는 것은 다른 불교국가와 비교해 볼 때 놀라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비구니스님이 다른 비구니에게 전법계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다른 분야에서는 중국의 당 송시대의 '사자상승'에 대한 인력과 법맥에 대한 논란이었다. 선행이 탄트리즘적인 요소가 있으며

수행에서 나타난 깨달음의 인가가 인맥의 배경 또는 지역의 배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에 관한 것이 논란의 주 내용이었다. 중국에서 여성수행자의 심리적 영향에 대해 주제발표한 분과도 있었다. 비구니 수행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효과 또는 전통을 잇는 종교적 상황이 당시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현대에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한 내용이었다. 고대의 것을 새롭게 인식하여 현대에 재생산해 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학자는 서양의 지식인들은 동양의 불교를 이해하고 연구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방향의 삶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 많은 불교학자들이 세계적인 학회에 동참해 한국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양학자들에게 한국불교에 관한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이는 자연히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도심지에서 사찰중심의 포교 이상으로 효과가 높다고 생각한다.

이번 학회에서 서양인들이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다 불교도 서양에서 역사입해서 연구해야 하는 날이 올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는 이미 한국불교의 순수성을 알리기에는 늦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전통사찰이나 도심지 사찰에서 티베트불교를 소개하고 그들의 수행이 가장 왕신하고 저를 승려가 정통성을 가진 수행자라고 여겨질 정도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지 않는가? 특히 최근 많은 한국스님들이 한국불교의 수행을 제대로 익히지도 않은채 인도, 티베트에서 수행법을 익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우리 불자들이 먼저 자각하고 이를 해외에 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동국대 교수, 선학>

### “한국비구니” 처음 들었다” 큰 관심 학자들 “불교연구 인류 세진로 모색”

### 불자의 생각

#### 초파일 연등

올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켤때 특별히 기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98명이 동참한 불타뉴스 네티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명(45%)이



#### “가족건강 위해” 응답 45%

가족의 건강이라고 밝혔다. 또 19명(19%)이 건강성불을 위해서, 10명(10%)이 사업번창, 9명(9%)이 세계평화·남북통일을 꼽았다. 7명(7%)이 조상의 극락왕생, 4명(4%)이 취업·각종 시험 합격, 5명(5%)이 기타 라고 응답했다.

부처님 오신날 등은 몇개나 켤 생각이라는 질문에는 44명(45%)이 1개, 23명(23%)이 2개, 21명(21%)이 3개, 10명(10%)이 4개이상 이라고 답했다.

임연태 기자

2546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을 다함께 기뻐합시다



- 애기봉 점등식**  
일 시: 4월 17일(수) 오후 6:30  
장 소: 김포군 월곶면 애기봉 관망대
- 시청앞 점등식**  
일 시: 5월 6일(월) 오후 7:00  
장 소: 서울시청 앞광장
- 등 전시회**  
일 시: 5월 13일~20일  
장 소: 강남 봉은사
- 법요식**  
일 시: 5월 19일 하루  
장 소: 전국의 모든 사찰

- 연등축제**  
머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우리 불자의 정성과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세계적 축제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연등놀이**  
연등축제의 전야제로서 각 사찰에서 자랑하는 장엄등과 연등단들이 총출연하여 연등축제의 흥을 한껏 돋구는 거리행사입니다.  
일 시: 5월 11일(토) 오후 7:00-8:30  
장 소: 조계사 앞, 탑골공원
- 불교 문화의당**  
각종 불거리, 전통문화체험, 살거리, 먹거리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문화 한마당입니다.  
일 시: 5월 12일 오후 12:00-7:00  
장 소: 조계사 앞 우정국로

- 제등행진**  
수만명의 불자들이 종로거리를 환희와 등불로 가득 채우는 연등축제의 백미입니다.  
일 시: 5월 12일 오후 7:00-9:30  
장 소: 동대문운동장-조계사 앞
- 대동 한마당**  
제등행진을 마친 불자들이 우정국로에 마련된 회향식장에서 대동 한마당을 열고 강강술래로 하나가 됩니다.  
일 시: 5월 12일 오후 9:30-10:30  
장 소: 조계사 앞 우정국로

